

원자력 인적자원 양성 방안

□ 추진 배경

- 원전 추가건설, 원자력 해외수출 및 대규모 신규 R&D 추진 등으로 인해 원자력 인력에 대한 수요가 대폭 증가
 - 원자력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단기간에 전문인력 확보가 어려움
- 또한 원자력 현장(연구기관, 규제기관, 산업체 등)의 요구 수준에 부응하는 원자력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

□ 추진 방향

- ◇ 학문간 융합을 통해 타 분야의 우수 인력을 원자력분야로 유인하는 프로그램에 역점을 두고,
- ◇ 대학의 교육과정과 수요기관의 요구사항이 연계된 산학연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우수 인력을 양성

□ 추진 내용

① 타 전공분야 우수인력의 원자력분야로 유인

- 이공계 우수 학부생이 원자력에 관심을 가지고 진로를 선택하도록 원자력 대학생논문 및 해외 인턴십 지원
- 국내외 석학, 원로과학자, CEO 등 원자력 전문가를 활용, 원자력 장기비전 등 체계적인 홍보 및 전문지식 전수 추진

② 산업체, 연구소 등의 수요에 부응한 현장 맞춤형 실무인력 양성

- 원자력공학 학부생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실험·실습 장비 제공 및 대형 연구시설 이용 등 지원
- 특화된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원내에 '원자력 특화 과정' 운영 검토
- 매년 대학, 원자력 유관기관, 산업체간 협의회를 개최하여 수요예측, 상호 연계 가능성 등 논의

③ 원자력의 미래를 선도할 석·박사급 고급인력 양성

- 세계 최고 수준의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'10년에 "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(WCU) 사업"을 원자력 분야에 지원
- 학문간 융합을 통한 기초연구 및 인력양성을 위해 "원자력기초 공동연구소(BAERI)" 및 "원자력 기초핵심연구 사업" 지속 추진
- 글로벌 능력을 갖춘 원자력 국제전문가 육성을 위해 국제기구 (IAEA, OECD/NEA 등) 및 해외 유명 연구소 등에 파견
-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수 연구자를 조기에 발굴·지원하기 위한 신진연구자 육성사업, 미래 연구자 육성사업 추진